

미얀마, 세계기부지수 1위... '보시문화' 때문

CAF·美여론조사기관 GWP 공동 조사 결과 '주목'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국가에 불교도의 나라 미얀마가 선정됐다. 그러나 미얀마는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된 군정 속에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가난한 나라'란 인식이 자리잡아 이번 결과가 의외라는 평이다.

미국 시카고 라디오 방송 'WBEZ 91.5'는 12월 1일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자비로운 국가가 어디인지 결코 추측하지 못할 것'이란 제목으로 "그곳은 바로 미얀마다. 만약 당신이 고개를 가우뚱한다면 '부유한 자가 자선을 많이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난 결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국제구호단체 'London-based Charities Aid Foundation(이하 CAF)'가 조사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이하 WGI) 발표에 따른 것이다. CAF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GWP(The Gallup World Poll)'과 공동으로 145개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내용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가장 마지막 달이 언제입니까? △자선기관에서 봉사할 몇 번이나 실시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울 적이 있습니까?' 등이다.

이를 평균 집계한 결과 1위 미얀마, 2위 미국과 뉴질랜드, 3위 캐나다, 4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가장 기부가 적은 국가 하위 5개국에는 팔레스타인, 리투아니아, 예멘, 중국, 부룬디 등이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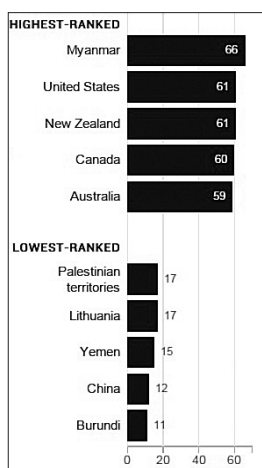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최상위 5개국 안에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진국이며, 최하위 5개

국은 개발도상국이 다수를 이뤘지만 8위 스리랑카, 11위 케냐, 12위 말타, 13위 바레인, 16위 과테말라, 17위 부탄, 18위 키르기스스탄, 19위 태국 등이 개발도상국이 다수 선정돼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아담 피커링(Adam Pickering) CAF 국제정책매니저는 "G20 국가 중 단 5곳만이 상위 20위 안에 선정됐다"면서 "부유함이 곧 더 많은 자비와 관용을 일컫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WBEZ 91.5"는 미얀마가 1위를 기록한 이유로 '불교'를 지목했다. 'WBEZ 91.5'는 "미얀마의 명상 문화, 민중주의 등과 같은 국가적 성향이 높은 기부율을 기록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종교적인 기부가 주안점이다. 대부분이 불교도인 미얀마 국민들은 매일 스님들에게 재물과 음식 등 보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웨일스 남단에 위치한 카디프대학(Cardiff Univ.) 폴 풀러(Paul Fuller) 불교학 교수는 "미얀마인들의 이러한 특성은 '현생의 업이 후생으로 이어진다'는 불교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이 기부할수록 다음 생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고



CAF 통계 결과 출처=NPR



CAF와 GWP가 실시한 '세계기부지수(WGI)'에서 미얀마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얀마는 불교도가 대다수기 때문에 종교적 기부 문화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WBEZ 91.5

145개국 대상 통계 조사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1위 20위 내 'G20국가' 5곳 그쳐 '가난함과 자선기부 무관해'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시카고 주 디칼브에 위치한 노던일리노이대학교(Northern Illinois Univ.) 동아시아예술학 부교수 캐서린 레이몬드(Catherine Raymond)는 "기부문화는 미얀마 역사를 담고있다"면서 "종교와 기부문화는 서로 얽혀왔다. 11세기 사찰 입구에 기록된 '기부' 관련한 현판들이 이를 가늠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서린은 "미얀마인들에게 사찰에 직접 식량을 가져가거나 아침에 자백 문 앞을 두드리는 동자승과 승려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WBEZ 91.5'는 미얀마가 수십 년간 군정 독재 아래서 풍족한 삶의 질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 문화가 고착될 수 있었던 점과 이에 더해 기부율이 점점 증가된 점에 주목했다.

"WBEZ 91.5"는 "수십 년간 미얀마는 강압적인 군정으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부율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영리 인도주의단체 'American Jewish World Service' 시민권 활동가로서 미얀마에서 일하고 있는 제네 카페시(Jenna Capesi)는 "내부적 혼란이 종교적 기부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군사 정부와 집권당 등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미얀마인들은 더욱 종교에 의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얀마는 지난해 WGI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64위로 기록됐다. 박이름 기자

태국에 세계 최대 '얼음 불상' 들어선다

아롱콘 조각가, 국왕 88세 생일 기념해 제작

태국의 유명 휴양지 후아힌(Hua Hin)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불상이 들어선다.

'방콕포스트'는 12월 1일 "프라추아프 키리칸(Prachuap Khiri Khan)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얼음 조각가 아롱콘 팀차로엔(Alongkorn Timcharoen) 작가가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태국 국왕의 88번째 생일을 기념해 대형 얼음 불상을 조각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얼음 불상은 형형색색의 얼음으로 높이 599cm로 제작되며, 세계 각국에서 휴양지 후아힌을 찾아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후아힌 기차역 광장에 전시된다.

아롱콘 작가는 "불상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99개의 얼음 블록으로 제작될 것"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작을 밝히면서 태국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 후아힌의 아난타락건강학교(Anantarak Health Training School) 측은 불상 제



태국 사라부리(Saraburi) 지역 청소년들에게 얼음 조각을 가르치고 있는 아롱콘 팀차로엔(Alongkorn Timcharoen) 조각가 모습.

작에 사용될 얼음 블록 99개의 기부를 약속했다. 또 세계적인 얼음 조각가로 꼽히는 아롱콘 작가의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얼음 조각가들도 속속 모이고 있다.

한편, 아롱콘 작가는 일본 아사히카와(Asahikawa)와 중국 하얼빈(Harbin)에서 열린 '얼음 조각전' 등을 석권한 바 있다. 아롱콘 작가는 "지난해 여름 사라부리(Saraburi) 지역의 청소년들과 '고속철도'를 주제로 공동 작업하며, 작가로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얼음 공예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스 캐나다, 中 입국 거부당한 이유는?

아나스타시아 린, 중국 인권 실태 및 종교 탄압 고발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시아 린(Anastasia Lin)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린은 12월 19일 중국 산야(Sanya)에서 열리는 미스월드 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으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

미국 산업지 'Tech Times'는 11월 27일 "중국에서 태어난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시아 린(Anastasia Lin)이 미스월드 타이틀을 얻기 위해 중국에 가려고 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해 참가가 무산됐다"며 "린은 이에 앞서 수차례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은 린이 '입국 기피 대상'이란 이유로 비자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법에 의해 중국 방문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입국의 입국 거부 조치는 이례적이다.

'Tech Times'에 따르면 린은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그가 평소 중국의 인권 문제에 정치적 억압 상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가 파룬궁(法輪功, 불교·도교·기공 등 혼합된 민간 신앙 운동)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불교와 중국 요가 등을 수양하는 단체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 공화당이 불법으로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시아 린(Anastasia Lin) 사진출처=Tech Times

규정하며, 정부에 의해 '이단 종교'로 취급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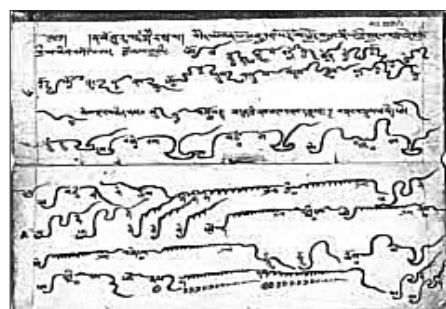
이밖에도 린은 '워싱턴포스트' 사설에 기고하거나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며 '중국 내 종교 박해' 등을 고발했으며, 곧 개봉하는 캐나다 영화 'The Bleeding Edge'에서 수감된 파룬궁 일원 역활을 맡았다.

이에 린은 자신의 심경을 개인 페이스북(Face book)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다. 린은 "중국 정부는 한 명의 '행동하는 학생'과 '미의 여왕'이 두려워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파룬궁은 불교와 도교 원리, 기공과 과학적 이론이 결합된 불가의 상승수련대법이다. 중국당국은 불교를 가장한 사교라는 이유로 파룬궁 지도부를 검거하고 수련자들을 구금하는 등 억압해왔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티베트서 13C 추정 '불교 고적' 대거 발견

폐허된 고대 티베트 사원서... 30여 점 출토

불교 악보·반야계 경전 등 희소성 뛰어난



폐허가 된 고대 티베트 사원지를 발굴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고대 티베트 불교 고적 300여 점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 중에는 곡선과 점 그리고 음절 문자로 기록된 티베트 불교의 고대 악보(사진 오른쪽)도 포함돼 있다.

티베트 악보를 비롯해 30여 종의 불교 고적이 새롭게 발견됐다. '글로벌타임즈'는 "폐허로 남겨진 고대 티베트 사원을 조사하던 역사학자들이 티베트 악보를 비롯해 30여 종의 불교 고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고적은 13~18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악보는 그 희소성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악보는 일부 티베트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악보와 마찬가지로 곡선과 점 그리고 음절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타임즈'는 "곡선, 점 등으로 구성된 탓에 티베트 악보는 아직까지 해독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음절 문자로, 불교 의식에서 신을 맞이하고 귀신을 쫓는데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티베트 불교의 경문은 지숙음을 포함한 조용한 중창으로 이루어진다. 이대 연주되는 악기는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이며 현악기를 쓰지 않아 매우 시끄럽다.

티베트 불교계는 고대부터 자신만의 악보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티베트 사원에서는 '앙이'라고 부르는 곡선악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대의 악보는 다르다. '앙이'는 악보를 의미하는 티베트어로 음의 고저장단을 곡선으로 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티베트의 곡선악보는 동티베트 드카르 문제스의 스테드제 마을에 있는 스테드제드곤첸(sde-dge-dgon-chen)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곡선악보'와 유사하다. 이 사원에는 18세기에 설립된 '경관 보관관'이 있는데, 이 중에는 300여 장의 곡선악보 경판이 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고대 전적은 주로 반야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욱 편집위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중·안내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영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중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불교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